

제105-5차 총회 임원회 열고 제106회 총회준비

제106회 총회일정, 장소 주제 확정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평화로운 총회!(삼상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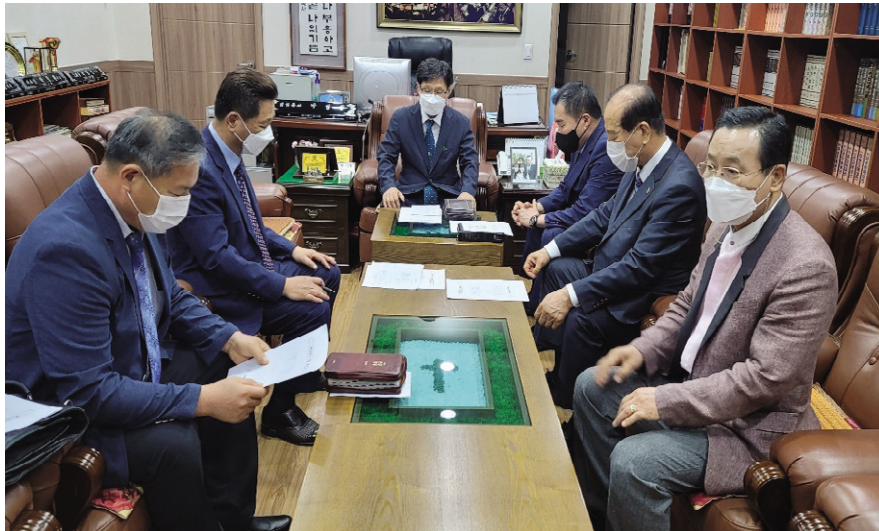
공천위원회와 함께 개회 예배를 드린 후에 따로 모인 제5차 임원회는 제106회 총회를 준비하는 회의로서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무를 위한 기도는 총회 회계 박병욱장로(꽃밭교회)가 담당하였고, 서기가 임원회원을 호명하여 전원 참석을 보고하니 총회장이 개회를 선언하였다. 회계 박병욱 장로의 회계 보고와 사무총장 박만진목사(떡소제일교회)로부터 교단 통합결과 보고와 그에 따른 실행위원회소집 공고에 관한 보고

를 청취하였다.

이날 회의에 상정된 안건과 결의사항은 1.제106회 총회준비 (1) 총회 일정은 규칙 제31조에 의하여 소집하되 코로나 19 방역지침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하여 2021년 9월 27일(월) 오전 11시에 개회하기로 하다. (2) 총회 장소는 부총회장 박형진 목사가 답임하고 있는 새은혜교회 예배당(안산시 단원구 광덕 서로 44)으로 정하다. 3) 총회 주제는 부총회장 박형진목사의 제안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

된 평화로운 총회(삼상7:14)로 정하다. 2. 제106회 총회 준비위원으로 부총회장 박형진목사, 서기 신연식목사, 회계 박병욱장로, 사무총장 박만진 목사를 위촉하다. 3.총회 총대의 건은 법대로 유지하되, 제106회 총회에 한하여 목사 임직 10년 이상, 장로 임직 5년 이상인 자를 신임 총회장의 초청으로 참석케 하여 성황을 이루게 하자. 4. 실행위원회 소집의 건은 교단통합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하되 그 결정권을 총회장과 부총회장에게 위임하다.



메시지

심지가 견고한 자



총회장 이경근 목사
(평안교회)

심지(心志)는 마음의 의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마음먹은 대로 살려는 강한 의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그대로 지키며 살았던 경우와 같은 것이라 생각됩니다(단1:8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러나 단순히 고집이 센 것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전모 씨처럼 자기 죄악에 대해 끝까지 부인하고 뻔뻔하게 사과조차 안 하는 고집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장모 씨처럼 함께 저지른 악에 대해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뜻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입니다”(사26:3)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참 신앙은 자기를 믿는 신념이 아닙니다. 자기 능력이나 자기 지혜, 자기 철학이나 사상, 자기 경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동의하는 고생명까지 모든 것,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일이 잘 안되고 힘들 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심지가 견고한 자입니다.

유다서 1:20에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는 것이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우길 소원하며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소원을 늘 품고 살길 바랍니다. 형식적인 믿음, 위선적인 믿음, 누룩 같은

거짓 복음, 겉보기에 믿음 같아도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믿음 위에 덕과 지식과 절제, 인내와 경건, 형제 우애와 사랑을 공급하며 자기를 바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살아가십시다.

때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심지가 견고한 자로 살지 못할 때가 있는 줄로 압니다. 물질문제, 빚, 주택문제, 자녀 결혼이나 취업문제, 건강문제 인간관계 등등 지나치게 염려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모든 염려 걱정에서 해방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염려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신뢰하는 사람은 언제나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담대하게 살아가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한계에 부딪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의 복을 받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재물이 많은 복, 건강의 복 다 중요하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중요한 것이 평강의 복입니다. 가정과 교회에 평강의 복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의와 평강과 화락이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4:9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대로 살면 평강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살후 3:16) 뿌리 깊은 나무처럼 요동함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시므로 평강의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106회 총회 공천위원회 열려

총대 97명, 상비부서 및 상임위원 공천 작업

합동위원회 3차 회의

대신측과의 통합조건 11개 조항 확정

제105회기 총회 합동위원회(위원장 박형진 목사)는 지난 7월 19(월) 오후 3시 교단 본부에서 제3차 합동위원회를 열었다.

회의에 앞선 예배는 합동위원회 서기 윤서구 목사(임마누엘 교회)가 인도하였다.

신앙고백 후 찬송 212장을 부른 후 임종학(전북신학원원장)목사가 가도하였다.

합동위원회 위원장 박형진 목사가 “그리하면 네 길을지도 하시리라!”(잠언 3:5-6)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총회장 이경근(평안교회)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의장 박형진 목사는 회부에 앞서 류현욱 목사(동명교회)로 기도하게 하였다. 서기 윤서구 목사가 위원을 점명하고 전원 출석하였음을 보고하매 위원장이 개회됨을 선언하였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대신측과의 통합 여부를 결정하는 일로서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통합 결과보고를 하게 한 후에 합동위원회가 결의한 11개 조항을 조건 없이 수용하면 통합하기로 가결하였다.



제106회 총회를 앞두고 공천위원회가 열렸다. 지난 7월12일(월) 새은혜교회 예배당에 모인 10개 노회 노회장들과 총회 임원회가 한자리에 앉아 제106회 총회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개회 준비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회의에 앞선 예배는 총회 서기 신연식 목사(디베라교회)의 인도로 시작되었다. 전북노회장 김정호 목사(한소망교회)가 기도하고 총회장 이경근 목사(평안교회)는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립(고전15:15 ~18)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사무총장 박만진 목사(떡소제일교회)가 공천위원회의 진행과 106회 총회준비에 필요한 노회별 사무 행정에 관한 안내 후에 부총회장 박형진(새은혜교회)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곧이어 진행된 공천위원회는 총회 규칙대로 서기 신연식 목사가 사회자로 나서서 회부에 임하였다.

강대민 목사가 회의를 위한 기도를 하였으며, 회원을 호명하니 위임 2명을 포함하여 전원 출석하였으므로 개회를 선언하였다.

총회 규칙에 의하여 제106회기 공천



위원장은 노회장 가운데 선임자인 서윤남노회장 강대민 목사(성현교회)를 추대하고 회원들의 호선에 의하여 전북중부노회장 유남규 목사(어울림교회)를 서기로 선출하였다. 공천위원장 강대민 목사가 인사하고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제106회 총회의 총대 97명을 확인하고 상비부서 구성 및 상임위원 공천작업을 시작하였다. 한편 총회 임원전령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총회임원전령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위원장직을 직전총회장 김정용 목사(중을산교회), 서기는 공천위원장 강대민 목사가 겸임하게 되었으며, 전령위

원으로 추대된 증경총회장은 류현욱 목사(익산동명교회), 윤서구 목사(임마누엘 교회), 증경장로부총회장 김순호 장로(재인교회)를 추대하였다.

이날 새은혜교회의 당회원들과 여전도회 회원들은 회의에 참석한 내빈들을 지극한 정성으로 영접하고 간식과 오찬을 제공하며 섬김으로 참석자들의 칭송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은혜교회는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44에 소재한 교회로서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교회로 소문이 자자한 가운데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젊은 교회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6회 개혁총회 소집공고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개혁교단 산하 모든 노회와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106회 총회를 총회규칙 제7장 31조 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소집공고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장 이경근 목사

- 주제 :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평화로운 총회 (삼상7:14)
- 일시 : 2021년 9월 27일(월) 오전11시 - 30일(목)까지
- 장소 : 새은혜교회당 (담임 박형진 목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8 이노프라자 7층 (010-8424-0688)

- ※ 총대님 섬기시는 교회의 세례인헌금 6월30일까지 납부는 필수입니다.
- ※ 총회상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노회는 회원권의 제한을 받게 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규칙 2장6조)
- ※ 노회 헌의문서는 8월27일까지 우체국 소인 찍은 것만 인정합니다.
이메일 접수/pmj0675@naver.com으로 8월30일까지)
- ※ 목사임직 10년 이상, 장로임직 5년 이상인 모든 분을 총회에 초대합니다. (초청인 : 신임 총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

총회장 : 이경근 목사
서 기 : 신연식 목사

(우)03127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6길 73-4
전화 02)742-3538

社 說

통합결렬을 통해서 지혜를 얻자.

하마터면 개혁교단사에 흑 역사 한 줄을 더 할 뻔했으나 막판에 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슴을 쓸어내린다. 홀 어진 형제 교단 사이의 합동이 그리도 어려운데 역사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교단과의 통합은 시도부터 어려움은 예견되었다는 것이 후에 들리는 여론으로 파악된다.

이번 일은 앞으로 있을 법한 통합이나, 합동에 있어서 타산지적으로 삼을 만한 일이었다고 평가한다. 우선 합동위원회가 통합을 진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규칙에 입각한 원칙을 세우고 흔 들림이 없이 조지일관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본 교단의 합동위원회에 는 전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서있다.

이 원칙을 따라서 총의를 모아가 면서 질서있게 추진한 점이 돋보인다. 반면에 상대방은 전권을 가지고 협의에 임한다면 서로 결정사항을 반복하기

를 거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합의 열매를 보기 어렵겠다는 예상을 한 위 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둘지 않고 차분하게 진행한 점도 좋았다. 교단의 형편과 처지만을 생각 하여 조금씩 서둘렀으나 끝까지 교단의 위상과 역사를 생각하며 냉정 하게 대처한 점은 두고두고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 합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차분하게 최종통 합합의문까지 작성해 놓고, 대신 측 총 회장과 합동위원회를 교단 본부로 초 청하여 양측 합동위원회에서 본 총회 의 합의안을 100% 수용하기로 합의하 고 돌아가서 소집한 대신측 합동위원 회 전체회의에서 촉발된 거센 반발에 부딪치자 설득하지 못하고 결렬을 선 언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얻은 교훈을 새겨 서 교단의 세 확장을 서둘지 않기로 다 짐을 해두기를 촉구한다.

제106회 총회를 건강하게 세우자.

장간이지만 통합총회를 기대하면서 들쭉던 마음을 차분히 하여 제106총회 를 건강하게 세울 일에 총력을 경주해 줄 것을 주문한다. 총회장으로서 의사 봉을 건너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부총 회장은 제106회 총회의 주제를 ‘하나 님의 은혜로 회복된 평화로운 총회(삼 상7:14)’로 정해 줄 것을 임원회에 제 출한 것으로 알려 졌다. 그의 품은 뜻이 어합을 집착하게 하는 주제이다. 아 직도 회복되어야 하는 어지러움과 불 화의 총회가 아닌 이미 회복된 총회로 보아야 한다는 선제적이고 긍정적인 사 고를 드려낸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런 주 제에 걸맞게 준비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 모든 총대들의 염원일 게다. 이미 공 천위원회가 가동되었으며, 상비부서 와 상임위원들의 공천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안다.

아직 총회까지는 시간이 넉넉하다. 살피고 또 살피서 모든 총대들의 생각 을 아우를 수 있도록 살피고 또 살피주 기를 주문한다. 주무부서에만 집중되 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소수의

사람에게 이중 삼중의 짐을 지우는 것 역시 배제되어야 할 것으로 지목한다.

지난 총회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임 원전형위원회가 법적정의 뜻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의 바 랍직하지 못한 옛일을 답습하고 있다 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 다. 각 노회는 총회의 일을 함께 감당하 는 생각으로 대담있는 인사를 임원 으로 추천하여 줌으로 해서 총회를 건 강하게 세워야 할 것이다. 제105회기 동안 코로나 19 펜데믹 사태를 겪으면 서 총회를 섬긴 임원단의 노고에 대하 여 총회원들은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감당할 일이 아직 남았다. 신규임원이 교체되 는 순간까지 초심을 버리지 말고 직무 를 다해야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서 해야 한다. 성찬식에서 떡을 때 고, 잔을 나누는 영광스러운 교제를 이 번 총회에서까지 생략하지 말아 줄 것 을 간곡하게 권한다. 정부의 시책을 따 를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방도를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

總 會 改革公報

창간일: 1984년 10월 1일
등록일: 2012년 8월 27일

서울다-10503호 발행인 이경근 사장 황호관 이사장 이충년 인쇄인 김갑기

대표전화 : (02)742-3538 http://rpcknews.com 웹하드: RPCK1004/개혁총회
주필 황호관 편집인 박만진 논설위원 김양섭 취재부장 유남규
게재번호 : 농협 301-0140-5587-41(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16길 73-4(연건동 195-15)
총회홈페이지 : www.rpck21.org E-mail : pmj0675@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베트남 신학생 초청 위로 예배

코로나19사태로 18개월째 고국 못 가고 실의에 빠진 베트남 신학생



에서 학생들과 관계자들이 이 연합하여 드 렸다고 한다.

연합예배의 인도자는 유남규 목사(중 부노회장, 어울림교회 담임)였으며, 전 북개혁신학원 총무처장 진상운목사가 기도하고, 학장 임종학 박사께서 “아름 다운 요셉”(창41:37~43)이라는 제목으 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말씀 선포에 앞 서 베트남 신학생 26명 전원이 우리말로 특별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 리고 참석자들을 감동케 했다.

이어진 순서로 총회장 이경근목사의 격려사와 격려금 전달이 있었다. 박찬 섭 장로(전북개혁신학원 동문)는 베트 남 153 선교센터 유원식 선교사에게 금 일봉을 격려금으로 전달하여 박수를 받 았다.

인사말을 통하여 유원식 선교사는 “계속되는 무더위와 고향이 그리워 지 쳐있는 신학생들을 초청해주셔서 큰 위

로가 되었다”는 내용의답사를 전했다. 사회자가 참석한 내빈 소개 후에 이 사장 김황용 목사(효자제일교회)의 축

도로 예배를 마치고 기념사진 촬영을 했다. 어울림교회는 참석자들을 따뜻하 게 영접하는 한편 온 성도들의 정성을

모아 삼계탕을 준비하여 대접함으로 베 트남 신학생들에게 성도의 사랑을 전해 주었다.

고(故) 송요섭 목사를 기리며!



황호관 목사 (꼭꾸는 교회 당회장)

양평을 일 각에 든듯히 터를 잡고 건 강하게 성장 하는 꼭꾸는 교회 로 부 터 슬픈 소식이 전해 온 것은 두어 달 전인 오월 27일이었습니다.

꼭꾸는 교회를 개척하여 8년 동안 목 앙임원으로 충성스럽게 섬겨온 송요섭 목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급히 천 국을 향하여 떠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황망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고 송요섭 목사는 작은 시골교회의 담 임목사였던 조부의 영향을 받으며 자랐 다는 아주 짧은 유년기 이야기와 대한민 국 유일의 푸른 지붕의 높은 집에서 무 술교관으로 오래 동안 근무했다는 젊은 남의 찬란한 무용담 조금, 그리고 구사 일생으로 사지에서 건져주신 엄청난 은 혜에 감사하여 늦깎이 목사가 되었다는 짧은 소명론, 그리고는 지방 연합집회를 마치고 귀경하는 길에 고속도로 상에서 당한 대형사고로 등급을 정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 이 되었으나 살아남기 위하 여, 아니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기위하여 약자같이 살 수밖에 없었노라 던 고난

극복 담이 귀에 쟁쟁하였습나다.

고 송요섭 목사는 개체교회 목회로만 만족하지 않고 선교에 꿈을 품은 동역자 들을 모아 지구촌 선교협의회를 세웠으 며, 순복음기도원, 양평금식기도원 등의 고정 강사로서 말씀사역에 전념하므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영성원을 열어서 마지막 때를 책 임질 지도자를 발굴하고 세우는 일에도 특심했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 송요섭 목사는 경서 노회에 속한 목사로서 여러 해 동안 부 노회장으로 노회를 섬겨 모범을 보이셨 습니다. 두발로만 걷기에는 숨이 차고 너무 힘이 들고 아파서 지방이여 의지 하는 힘겨운 일상이었으나 강단에만 서 면 밤을 세는 열정이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나 사명을 다한 것이라 믿습니다.

사명자를 모아야 한다며 사명교회를 세우셨고, 변함없는 복음, 하나님의 음 성만을 전해야 한다는 깊은 뜻을 담아 하늘소리 교회로, 그리고 말일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꼭꾸는 사람들을 모아 모 아서 여호와와 꿈을 이루고자하는 일념 으로 꼭꾸는 교회를 세워 섬기며,그 러나 아버지 집으로 훌연히 떠나 가셨으니 환송의 노란 손수건을 흔 들어 보이니나 편히 쉬소서! 뒤 따라 가

리다. 기다려 주시 게나! 친애하는 송 목 사님!

그 첫 소식!!

고 송요섭 목사의 소천 소식을 접한 경서노회(노회장 하예성 목사)는 긴급 임원회를 소집하고 장례절차에 들어가 는 한편 평소 소 속 목사와 긴밀한 교제 를 나누던 황호관 목사를 임시 당회장으 로 파송하여 교회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힘을 모았다.

꼭꾸는 교회는 노회의 파송을 받은 임 시당회장 황호관 목사를 환영하고 지도 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여 짧은 시간 내에 안정을 회복하고 정상을 되찾아 건 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으 며, 지난 수년 동안 고 송요섭 목사의 신 앙지도를 받으며 꼭꾸는 교회에서 동역 하며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졸업반에서 수학 중인 이현주 전도사가 조력하고 있 다고 한다.



고(故) 송요섭 목사

제106회 총회임원 전형위원회

위원장 김정용 목사, 서기 강대민 목사; 7인 소위원임



제106회 총회임원전형위원회(위원장 김정용 목사)가 지난 7월26일 오후5시 제1차 화상회의를 가지고 임원전형무역을 개시한 것으로 알려 졌다.

회무에 앞선 예배는 전형위 서기 강대민 목사(공천위원장; 성현교회)가 인도하였다.

전북중부노회장 유남규 목사(어 울림교회)가 기도하고, 위원장 김정 용 목사(직전총회장; 종울산교회)는 인도자가 봉독한 행13:1~3절 말씀 을 본문으로 “주님의 일꾼을 세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으 며 사무총장 박만진 목사(덕소제일 교회)가 전하는 총회준비상황을 청 취하고 증경총회장 류현옥목사(익 산동명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 었다.

증경총회장 윤서구 목사(임마누 엘교회)의 기도로 시작된 회무는 위 원장 김정용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었 다. 서기가 1명이 결석하고 전원 출 석하였음을 보고하여 개회됨을 선언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결의된 주요사항 은 1. 소위원으로 김정용, 류현옥, 윤 서구, 강대민, 김정호, 하예성 등 6인 의 목사와 김순호장로를 합한 7인 위 원을 선임하고, 오는 8월12일 12시, 교단본부에서 회집하기로 하였으 며, 2. 제105회 총회광고를 기준으로 총회개혁공보에 공고하기로 하고, 3. 전형후보자 등록은 8월24일 마감 하기로 한 것이다.

원만하게 회의를 마치고 전북노 회장 김경호목사(한소망교회)의 축 도로 폐회하였다.

제106회 총회임원 전형후보자 등록공고

제106회 총회임원 전형후보자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등록기간
2021년 8월 1일(목) ~ 8월 24일 오후5시까지 도착분
- 등록장소
(우)0858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110길 43 (독산동)
- 후보자격(선관위규정3장12조 참조)
 - 총회장 : 현 목사부총회장으로 하고 현 목사부총회장 유고시는 목사부총회장 후보 자격에 준한다.
 - 목사 부총회장 : 목사 임직 20년 이상인 위임목사 총대로 하되 다음 사항을 참조 한다.
 - 본 교단 소속연한 7년 이상으로 총대회수 5회 이상인 자.
 - 총회 직영신학교 또는 인준신학교를 졸업한 자.
 - 연령이 60세 이상인 자
 - 장로 부총회장 : 임직10년 이상인 장로 총대.
 - 서기, 부서기 : 임직 15년 이상인 목사 총대.
 - 회의록서기, 회의록 부서기 : 임직 10년 이상인 목사총대.
 - 회계, 부회계 : 임직 5년 이상인 장로 총대
- 등록서류
 - 등록원서 1통(소정양식 명함판 사진 2매 첨부), 등록원서는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음
 - 소속 노회장 추천서 1통
 - (목사) 신학교 졸업증명서와 임직증명서 각 1통 (장로) 임직증명서(시무기간 명시)
 - 소속 노회장 발행의 위임목사 증명서 1통
 - 주민등록 등본(목사후보는 등· 초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1통)
 - 이력서 1통
 - 등록금 및 총회 발전기금 영수증(사본)
 - 시무교회 세례교인헌금 납부영수증(사본)
 - 등록 당월까지 소속 노회의 상회비 완납 증(총회사무실 발행)
 - 모든 서류는 선거관리위원회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 등록금 : 100만원(공통)
- 발전기금
 - 총 회 장 : 500만원 단, 자동송계가 아닌 경우와 서기 경력이 없는 자는 2,500만원
 - 목사부총회장 : 1,000만원 단, 서기 경력이 없는 경우는 1,500만원
 - 장로부총회장 : 300만원 단, 회계 경력이 없는 경우는 500만원
 - 서 기 : 500만원 단, 임원 경력이 없는 경우는 1,000만원
 - 부 서 기 : 200만원
 - 회 록 서 기 : 150만원
 - 부회록서기 : 100만원
 - 회 계 : 300만원
 - 부 회 계 : 200만원
- 등록금과 발전기금 납부계좌: 국민807701-00-010094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임원전형위원회
총회장: 이경근목사 전형위원회위원장: 김정용목사 서기: 강대민목사

신 학



김재성 박사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 전 부총장; 조직신학)

※지난 호에서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문을 여는 서문을 소개하였다. 앞으로 계속해서 김재성 박사가 심혈을 기울여 저술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The Active Obedience Of Christ)을 연재하게 됨을 총회개혁공보의 자랑으로 여기는 바이다.

칭의(稱義, Justification)

바울 사도는 “의롭다하심(칭의)과 정죄”를 다음과 같이 대조적으로 풀이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

라(롬8:33-34).”

칭의란 하나님 앞에서 신자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법적적 선언이라고 종교개혁자들과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설명했다. 타락한 죄인으로 살아가는 인간으로부터는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릴 만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를 받는다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만 죄가 없다는 선고가 내려질 뿐이다.

칭의는 하나님의 법률적인 선고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께 자녀로 받아들여진다(엡2:8-9).

칭의는 성령의 역사로 성도들의 가슴과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룩함의 증진인 성화와의 명백히 구별되어야만 한다. 칭의는 갱신이나 회심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칭의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확정적인 선언이다.

그러나 중세시대부터 지금까지도 로마 가톨릭에서는 의롭다하심을 얻으려면 성도에게 도덕적 변화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스콜라주의 신학자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의롭게 된 자들 즉, 칭의의 증거라고 표현되는 일들을 행한 자들에게만 의인이라고 선언하실 수 있을 뿐이다.

로마 교회에 소속되어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고해와 속죄를 이행한 경우에도 최종적 칭의에의 확신을 주장하는 것은 주체념은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은 중세 말 스콜라주의 신학자들이 칭의와 성화의 과정을 전혀 구별하지 못하고 혼합시켰기에 이러한 오류가 발생했음을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루터는 1515년부터 그 다음 해까지 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로마서를 가르쳤는데 그는 자신이 알아왔던 구원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 구원의 길을 발견하였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와 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로마서3장28절에 대한 주석에서 루터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루터는 값없이 주시는 칭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으면서, 비로소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과 같은 감격과 확신을

갖게 되었다.

칼빈은 보다 정밀하게 풀이했다. 칭의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들을 의로운 사람들과고 받아 주시는 것을 말한다. 칭의는 죄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전가로 구성되어 있다”고 정리했다. 신자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전가된 의로움을 오직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임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하심을 받는다.

칼빈은 성령의 비밀스러운 사역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은 인약적 관계를 맺게 되며, 칭의와 성화의 은총을 동시적으로 누린다고 하였다.

종교개혁자들은 칭의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확신했다. 거저 주시는 공짜 선물이지만, 값싼 선물은 결코 아니다. 값으로 계산이 불가능한 엄청난 보배를 주시는 것인데, 그저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일뿐이다(고후4:7).

하나님께서서는 결코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의 의로운 행위를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으신다.

사람은 다 부패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킬 수 없다. 오

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만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 있다.

칭의의 수단은 오직 믿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바를 확고하게 믿는 것이다. 믿음은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다.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오직 그리스도로만! 이 세 가지는 상호간에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성경이 증언한다. 이들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설명하려면 다른 두 가지를 반드시 연결시켜야만 가능하다(갈2:16; 롬5:1; 엡2:8)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전가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성도들의 것으로 인정하여 주시는 것이다. 따라서 죄인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의로움을 성도들의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전가의 교리를 포함하고 있다.

아무리 완벽한 기독교 신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인격적 의로움이나 내재적 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것으로 전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다음호에 이어서)

동 정



이경근 목사(총회장, 평안교회)
7월 5일(월) 전북동노회 교역자회 설교
7월 9일(금), 19일(월) 합동위원회 축도
7월 12일 임원회 및 공천위원회 설교



임종학 목사(증경총회장, 재인교회)
7월 9일(월) 본 교단 합동위 소위원회 참여
7월 14일(수) 합동 추진위원
7월 19일(월) 본 교단 대선통회와의 합동모임



류현욱 목사(증경총회장, 동명교회)
6월 25일(금) 전북 개혁신학선교원 정기총회 참여
7월 5일(월) 전북동노회 교역자회 참여
7월 9일(금) 19일(월) 총회 합동위원회 전체 모임에 참여
7월 20일(월) 총회 전행위원 화상회의예배에 축도



황호관 목사(증경총회장, 본보사장)
6월 29일(화) 교단 합동위 추진위원
7월 13일(화) 청운교회 합동추진
7월 14일(수) 합동추진 보고



강대인 목사(증경총회장, 성현교회)
7월 12일(월) 공천위원장 선임
7월 12일(월) 총회 임원 전행위원회 서기
7월 20일(월) 전행위원회의 참석



박형진 목사(부총회장, 새은혜교회)
7월 9일(금) 합동위원회의 설교
7월 12일(월) 공천위원회 장소허락
7월 19일(월) 합동위원회 설교



윤서구 목사(증경총회장, 임마누엘교회)
7월 9일(금) 합동위원회 참석
7월 19일(월) 합동위원회 회의 참석



신연식 목사(서기, 디베라교회)
7월 12일(월) 제106회 공천위원회 사회
7월 12일(월) 임원회 참석
7월 12일(월) 공위원회 사회



김정호 목사(전북노회장, 한소망교회)
7월 9일(금), 19일(월) 합동위원회 참여
7월 12일(월) 공천위원회 참석
7월 20일(월) 총회 임원 전행위원회 참석



박만진 목사(사무총장, 덕소제일교회)
7월 5일(월) 한교연 회의
7월 9일(금) 합동위원회 참석
7월 12일(월) 공천위원회 참석
7월 19일(월) 합동위원회 참석

신학&신앙



장 영 목사
(신학학 교수)

지난 시간에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보낸 각 편지의 내용이 일정한 패턴을 따라 구성되었다고 하였는데, 오늘 강의에서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각 도시의 역사적 특징들과 함께 그 패턴의 구성, 즉, 수신자 언급, 예수님의 특별한 모습, 칭찬, 책망, 권고/경고, 성령의 촉구,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으로 이루어진 순서에 따라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시작함으로써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 첫 번째 수신자인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2:1-7)임

을 밝힙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에베소는 터키 서남부 해안에 위치한 소아시아 제일의 항구도시로 대부분의 동서 무역이 이 항구를 통해 이루어졌고 고린도나 가이사라 등 지중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고대의 세계 7대 불가사이라들 중 하나인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주전 29년에 그 신전의 일부가 아우구스투스 로마제국 초대황제 숭배를 위해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기원전 27년에는 아시아의 행정수도가 버가모에서 에베소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당시에 아시아의 행정 수도는 에베소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주후 50년 말경 바울 사도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도시인 이 에베소를 선교전략상 매우 중요한 도시로 생각하고, 이곳에서 3차 선교 때 3년간이나 머물며 교회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 후 사도 요한이 사역하고 있던 1세기 말경의 에베소

는 문자 그대로 기독교의 아시아지역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에베소 교회에게 1절 후반절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건너시는 이”로 예수님의 특징적인 모습이 소개되는데, 이 구절은 앞장 1장 20절에 나오는 “일곱 별과 일곱 금 촛대”라는 단어들을 반복 사용함으로써 1장과 2장 사이를 서로 맞물림 구조로 만들어 1장과 2장을 긴밀하게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한편 그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승천 후 하늘에 계신 지금도 자신의 피 값으로 사신 교회들 안에 임재하시며 그들을 주장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네 행위와 ... 아노라” 하며 칭찬이 나오는데, 문제는 그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즉 선행 행위인지 악한 행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네 행위 “와” 할 때 그 “와”를 ‘보설적 과(補說府): expegetetic and’ 로 보고 다시 읽어봅시다. “네 행

위, 즉, (네)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읽으면, 뜻이 보다 잘 통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책망을 하시고, 이어서 5,6절에는 권고/경고 부분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나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기에 나오는 “나골라 당”은 구약의 발람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여 우상의 제물과 음행을 조장했던 자들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나골

라 당의 거짓된 것을 밝히내고 진리를 지켜내는 과정에서 첫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권고하시고 그리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7절 전반절에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성령의 촉구와 후반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는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계시록 끝부분인 22:2 “...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에서 성취됩니다.

이렇게 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적 특징은 계시록의 첫 부분에서 이기는 자에게 한 그 약속들이 계시록 끝부분에서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는 ‘약속에서 성취로 발전해나가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보 발행을 위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이경근 목사
발행인



이충년 목사
이사장



황호관 목사
사장

보내주실 곳

농협 301-0140-5587-41
예금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전화: 02)743-3538, 010-6358-0191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본보 후원하신 분

광 고	4,300,000	임용태	300,000	이충년	300,000
총회신학교	2,100,000	강대인	200,000	장영광	300,000
이 경 근	1,400,000	박춘배	350,000	채영구	100,000
경기 노회	800,000	소성교회	300,000	장정수	50,000
전북 노회	700,000	디베라교회	50,000	이부교	350,000
전북동노회	700,000	박경남	1,800,000	김정용	350,000
전북중부노회	350,000	김선영	350,000	정완득	350,000
서울남노회	400,000	주향교회	50,000	김상열	50,000
서울동노회	700,000	새생명교회	100,000	김정호	300,000
경서 노회	300,000	이다윗	50,000	김만술	50,000
경중 노회	100,000	이해동	200,000	박순종	50,000
남부 노회	150,000	김항용	100,000	임용태	50,000
김 양 섭	300,000	유한수	50,000	이원식	150,000

- 후원이사 매월 200,000원, 100,000원
- 노회이사 매월 100,000원, 50,000원
- 개인예배광고 년 300,000원
- 1년 1번 구독료 50,000원
- 기타 개인후원 등등



總 會

改革公報

연 구독료를 납부해 주십시오!!



사장 황호관 목사

“전국 교회와 노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본보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에 큰 힘이 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실 곳

농협 301-0140-5587-41
예금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년구독료는 5만원 입니다.

- ※ 예배광고비는 년간 30만원 입니다.
- ※ 송금 후 총회사무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 會

改革公報

우)03127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6길 73-4(연건동 195-15)
전화: 02)742-3538, 010-6358-0191 팩스: 02)742-3539

지상설교

로마로 가는 길

(사도행전 28장 11~16절, 잠언 29장 18절)



이충년 목사
(중경총회장)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따르면 비전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꿈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있었던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1. 로마를 향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것은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다윗 등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전은 인간이 만든 허황된 꿈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녀를 기다린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야 한다는 비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행23:11, 27:24). 하나님의 명령이 바울이 행보를 로마로 향하게 한 것입니다.

2. 로마로 가는 길에 유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전진하다가도 세상 유혹에 흔들리거나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도 두 가지 방해 요소가 있었습니다. 불순종과 졸속의 유혹이었습니다.

미함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겨울을 나고 떠나자는 바울의 제안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쾌락과 경제적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한편 한 생명이 태어나기까지는 열 달을 기다려야 하고 밀보리를 추수하기 위해서는 일곱달을 기다려야 하듯 모든 것에는 때와 기한이 있

습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일을 성급하게 졸속 처리하려 할 때 실패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비전을 받았다면 불순종과 졸속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중도하차하거나 어렵다고 물러서는 일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3. 로마로 가는 도중에 풍랑도 있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임에도 그 길에 풍랑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난을 죄값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인생에게 언제나 주어질 수 있는 것이며(욥5:6-7),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교정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합니다(히11:5).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성품을 주시려는 건설적 고난도 있고, 나사로의 죽음과 같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또한 천성을 향해 나그네 길을 가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환란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온갖 소동 중에도 평안을 잃지 않았고,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일관되게 자신의 길을 갔으며, 죄수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에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두려워했기 때문에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목적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개개인에게도 특별한 사명을 주셨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바울이 뒀던 배와 같이 흔들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있으나 바울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간절한 소원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고난도 유혹도 풍랑도 모두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총회를 앞두고 교단 간의 통합을 추진하여 상당한 진전을 보이며 106회 총회에 대한 기대를 갖게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지막 순간에 상대방 총회로부터 일방적으로 통합 불가를 통보해 옴으로 통합논의는 원점으로 회귀하고 말았다. 이에 그간에 논의된 과정과 내용을 소상하게 밝힘으로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고자하며 오해를 불식하려 한다.

1. 통합논의의 경위

대신(북구) 총회장께서 과거에 지인 관계인 본 교단의 중경총회장 중의 한 분에게 면담을 요청하였고 이에 응하여 첫 만남이 성사되었다. 그 자리에서 양 교단 총회가 겪은 흑역사가 비슷하여 서로 위로하며 하나가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교환하였고, 중경총회장은 본 교단의 합동대원칙을 신학과 신앙이 같아야 하고, 헌법은 본 교단의 헌법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하였다. 대신측 총회장과 사무총장 1명이 본 교단 본부를 예방(5월13일)하여 통합의지를 확실히 밝힘에 따라 이 이러한 사실을 사무총장이 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임원회(6월3일)는 본 안건을 합동위원회에 이관하였다. 임원회로부터 교단 간 통합을 추진해 보라는 취지의 안건을 이관받은 합동위원회는 1차 소위원회를 소집하여(6월8일) 경과보고를 청취하고 일단 통합을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양측 합동위원회 소위원회 상견례를 6월 22일 가나안 교회 소회의실에서 가지고 합동의 대원칙에 합의의 이루었다. 상견례 후에 본 교단 합동위원들은 일 장소에서 별도의 회의를 갖고, 사전조을 소위원으로 황호관목사, 임종학목사, 박만진 목사를 위촉하였다. 합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합동원칙 11개 조항을 작성하였다. 이 원칙에 합의하면 통합을 추진하기로 하다. 사전조을 위한 모임을 대신측 대표 김의철, 오세종, 정덕화 3인과 본 교단 측 2인이 청원교회 소회의실에서(7월13일) 모임을 가진 자리에서 본 교단의 12 조항을 일괄수용하되, 106회 총회를 합동총회로 소집하였으면 좋겠다는 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사전조을 한 내용을 합동위원장에게 보고하는 회의를 14일 새은혜교회 당회실에서 가지고 우리 합의안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통합추진을 중단하기로 하고 이 내용을 대신 측에 문자로 통보하였다. 이에 대신 측 합동위원장과 관계자들의 요청으로 19일 11시 교단 본부에서 양측 대표자 회의를 열고 본 교단의 제안을 100% 수용하기로 합의하였고, 오후 3시에 3차 합동위원회에서 통합 경과보고를 받고 교단통합을 최종 결의하였다. 7월 23일 대신측

합동위원회에서 본 교단과의 통합을 반대한다는 결의를 하였고 이 내용을 문자로 통보하여 왔다.

2. 대신 복구는 어떤 교단인가?

대신 측은 본래 김치선 박사의 신학과 신앙 노선을 따르는 제자들이 모여서 세운 교단으로 이해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신학의 좌경화의 길을 걷는 김재준 박사의 총회의 단죄를 받게 되고 김재준 박사의 영향력 아래 있던 조선신학교는 총회의 인준을 해지당하는 사태를 맞는다. 그당시에 김치선 박사는 아산 신학교를 열어 많은 제자들을 양성해내고 있었다. 그 신학교가 발전을 거듭하여 대한신학교가 되었고, 대신대학원대학교로 인가를 얻었고, 오늘날의 안양대학교를 있게 한 영향력 있는 교단이었다. 3년여 전에 백석총회와 통합하면서 교단의 흑역사는 시작되었다.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신 수호측으로 남고, 백석과의 통합을 찬성하여 백석총회로 들어갔으나 3년 후에 대신 측은 백석과 단죄를 선언하고 대신 교단복구를 소망했으나 하나 뒀에 실패하고, 잔류파, 백석대신, 대신북구로 나뉘는 결과를 가져왔다. 본 교단과의 통합을 추진했



던 총회가 바로 대신 북구 총회이다. 그분들의 처지가 우리 개혁교단이 밝아온 쪽적과 흡사하여 통합을 추진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3. 문서로 보는 통합추진의 내막

1) 개혁교단 합동위원회 합동 안

6월 8일 자 대신 측 합의사항을 참고한 본 교단의 합동 안은 다음과 같다.

양 교단의 통합을 위한 양측 조정위원들의 합의안에 대한 개혁총회 합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토 합의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통합된 교단의 공식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한국연합교단으로 하되 양 교단이 완전한 통합체를 이루는 제107회 총회부터 공식 사용한다.
2. 개혁교단 제106회 총회와 호서교단 제52회 총회는 각각 소집하여 임원선출 등 모든 회무를 정상적으로 운용한다. 단, 양 총회에서는 개혁교단과 호서교단의 통합을 결의하고, 제107회 총회를 통합총회로 소집할 것을 의결한다.
3. 양 총회는 제106회기 내의 모든 행사

(신년하례회, 목사장로기도회, 전국교역자대회를 포함, 전국장로연합회 수양회)를 공동주최한다.

4. 통합교단의 헌법은 개혁교단의 현행헌법을 사용하되, 통합교단의 정체성과 통합의 내역을 서문에 기록한다. 단, 보완사항은 헌법시행세칙으로 규정한다.
5. 호서대학교를 목회자를 양성하는 교단신학교로 인준하고 현재 양 교단에 소속된 신학교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6. 총회의 회기 수는 개혁총회의 기수를 계승하되 헌법시행세칙에 호서총회의 회기 변경내역과 통합의 역사를 기록한다.
7. 제106회기 내에 양 총회규칙의 동일화를 위한 규칙개정위원회를 양측 동수로 구성한다.
8. 총회신학 기관(신문사, 총회세계선교회, 총회부흥사회, 전국장로연합회)은 제106회기 내에 통폐합한다.
9. 호서총회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회원권을 포기하고 한국교회연합회의 회원권을 유지한다.
10. 양 총회가 파송한 5인의 교단통합위원으로 [교단통합전권위원회]를 조직

하여 제107회 총회의 임원선출을 포함한 통합총회를 준비한다.

11. 현 사무총장직은 양 교단 현행대로 유지하고 제107회 총회 이후에는 교단본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단, 현 사무총장을 예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21년 7월 9일)

2) 대신 측 합동 안

1. 총회 명칭 :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
2. 통합의 이념 : 정통개혁주의를 기본으로 한다.
3. 교단헌법 : 양 교단의 헌법을 존중하여 정체성은 서문에 기록하며, 개혁교단의 헌법을 상호 보완하여 사용한다. 단, 보완이 필요한 규정은 헌법시행세칙으로 정한다.
4. 규칙은 동수의 개정위원을 구성하여 조정한다.
5. 교단본부 : 현 개혁교단 본부를 사용하되 이전할 수 있다.
6. 총회신학교 : 정규 대학은 호서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을 교단 신학대학으로

- 인준한다. 또한 대신목회대학원,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전북개혁신학원은 현대로 유지하나 협의할 수 있으며 신학교 명칭은 통합교단의 명칭으로 변경한다. 양 교단의 지방 신학교는 그대로 유지한다.
6. 조정위원회 : 통합이 후 교단의 안정적 인 일치와 화합을 위해 7인 조정위원회(상호 3인과 총회장을 구성하고, 그 운영을 세칙으로 정한다.
7. 연합회 (한기총, 한교연) 회원권을 유지한다.
8. 총회의 기수는 현 개혁총회의 회기(제106회)를 계승하고, 헌법시행 세칙에 대신의 회기 변경 내역을 기록한다.
9. 양측 통합위원회에서 파송하는 동수의 대표자로 통합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장은 대신측이, 서기는 개혁측이 맡는다. 단, 간사는 양 교단의 사무총장으로 한다.
10. 각 교단 내부의 부채나 사무국은 승계하지 않고 각각 정리한 후에 양 교단의 통합위원회에서 협의한다.
11. 제106회 총회임원조직 : 통합위원회를 전형위원회로 전하여 임원을 선임하고 본회에 보고한다.
12. 총대원의 총대 수는 5년간 동수로 한다.
13. 합동총회(제106회) 일정을 통합위원회에서 정하고 각 교단의 총회장과 서기 명으로 공고한다. 총회일시 : 2021. 9. 13(월)-오후 2시 총회장소 : 호서대학교 (전안, 아산캠퍼스중 선택)
14. 통합총회를 위한 상비부조직, 재정, 신문사 등 기타 모든 통합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통합위원회에서 합의 진행한다.
15. 노회는 15교회 3당회(제109조)이상이면 통합총회를 준비한다.
16. 양 교단은 제1차 통합위원회에 실사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노회 현황(조직포함), 교회현황(조직교회, 미조직교회), 목사(원로)은퇴, 무임, 선교사) 장로(은퇴장로 포함)
17. 상호 불이행 시 모든 계약을 파기한다. (2021. 06. 08)
- 3) 통합최종합의문(초안)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총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교단 총회의 합동위원회는 양 교단의 통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1. 통합된 교단의 공식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대신(대신개혁)으로 한다.
2. 제106회 총회를 개혁교단과 대신교단의 통합총회로 소집한다.
3. 통합교단의 헌법은 개혁교단의 현행헌법을 사용하되, 통합교단의 정체성과 통합의 내역을 서문에 기록한다. 단, 보완사항은 헌법시행세칙으로 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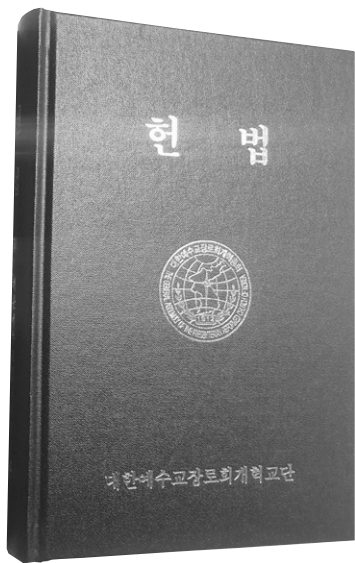
4. 호서대학교를 목회자를 양성하는 교단신학교로 인준하고 현재 양 교단에 소속된 신학교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5. 총회의 회기 수는 개혁총회의 기수를 사용하되 헌법시행세칙에 대신총회의 회기 변경내역과 통합의 역사를 기록한다.
6. 제106회기 내에 양 총회규칙의 동일화를 위한 규칙개정위원회를 양측 동수로 구성한다.
7. 대신총회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회원권을 포기하고 한국교회연합회의 회원권을 유지한다.
8. 양 총회가 파송한 7인의 교단통합위원으로 [교단통합전권위원회]를 조직하여 제106회 총회의 임원선출을 포함한 통합총회를 준비한다.
9. 제106회기 총회(통합총회)의 임원진은 다음과 같이 안배하여 구성한다.
총회장 : 박형진 목사(개혁총회부총회장)
1부총회장 : 김의철 목사(대신총회 부총회장)
2부총회장 : 개혁총회 목사총대 장로부총회장 : 개혁총회 장로총대 서기 : 대신총회 목사총대 부서기 : 개혁총회 목사총대 회의록서기 : 개혁총회 목사총대 회의록부서기 : 대신총회 목사총대 회계 : 대신총회 장로총대 부회계 : 개혁총회 장로총대 사무총장 : 개혁총회목사 사무국장 : 대신총회목사
10. 제107회 총회의 총회장은 제1부 총회장 김의철 목사를 추대한다.(7월 19일: 오전 11시, 교단본부)

4. 결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였으나 상대방의 행태에 의하여 통합이 결렬되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믿는다. 본 합동위원회는 법질서를 따라서 인내심을 가지고 협의에 임했으나, 상대방은 총회 경영의 경험이 부족함인지 질서 있는 협의체의 부재(不在)인지 모르나 논의의 일관성을 잃었고, 전권위원 자격으로 협의하고 나서도 곧 재론하는 것을 보면서 어려움이 없지 않음에도 인내심을 가지고 협의해 왔으나, 그들 내부의 강력한 반대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간의 내용을 소상하게 밝히는 것은 장래를 위한 참고자료로 남기려는 것이요, 어떤 오해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비생산적인 논쟁이나 여론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그간 통합을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신 총회장님과, 총회 임원들, 그리고 합동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다.

합동위원회 위원장 박 형 진 목사
서 기 윤 서 구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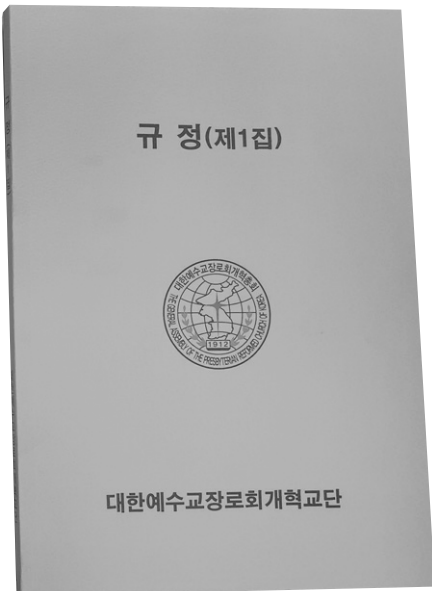
개정헌법



비치용 10,000원
소장용 15,000원

주문 : 노회, 신학교 및 개인별 택배(10원 이상) 주문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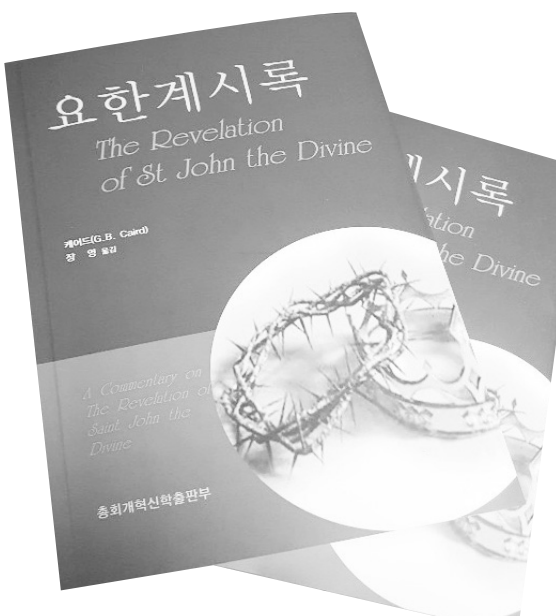
규정 (제1집)



가격 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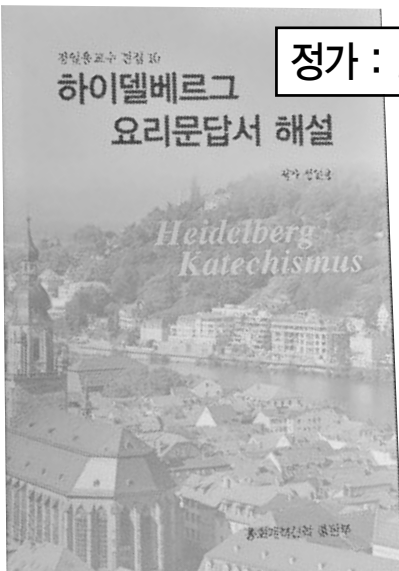
주문 : 노회별 주문은 할인됩니다!!

요한계시록



주문/ 담당 이다윗목사 010-2931-0691
우리는행/1005-604-047069(찬양교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해설 출판 보급



정가 : 27,000원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

총회장 : 이경근 목사 사무총장 : 박만진 목사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6길 73-4(3층)
전화 02)742-3538, 010-6258-0109

주문전화 / 02-742-3538 사무총장 : 010-6358-0191
통 장 / 농협 301-0116-9212-8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더불어 생각할 正論

이웃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



류현욱 목사
(총종총회장, 동명교회 담임)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만나고 싶어 기다려지는 사람, 별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람, 상대에게 거부감을 주는 사람이다. 무엇을 얼마나 어느, 무엇을 잘 하는냐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느냐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받고 있느냐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내고 화평을 이루셨다. 여기서 우리는 형제와 이웃에게 얼마나 좋은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가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모든 사람이 가까이하고 싶은 사람,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사람, 남들을 시원케 해 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바울사도에게는 많은 동역자가 있었다. 그들 가운데 특히 고린도교회의 [스데마나와 브르나도] [아카이교]가 있었다.

이들에 대해 바울사도는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라고 말씀하였다. 곧 마음에 격정거리나 근심거리를 털어주고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는 것이다. 이웃의 마음을 시원케 해 주는 사람, 공동체에 꼭 있어야 할 사람, 가까이하고 싶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일까?

①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다.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시원함을 준다. 섬기는 사람의 마음에는 교만이 없고, 오직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이다. 초대 교회의 [바나바]는 겸손한 화평의 인물이었다.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울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많은 사람이 사울을 의심하고 두려워하며 경계했다.

이때 바나바는 그 사울을 대변해 주고, 그를 주님의 일군 ‘바울’로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겸손히 섬기는 사람은 사람과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고 시원케 한다. 그러나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의 마음에는 교만함이 있다.

교만한 마음은 상처와 고통을 남기고 분노를 일으킬 뿐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섬기는 자리에서 일하셨다.

그러한 주님이시기에 하나님 아버지를

시원케 해 드렸다. 그리고 우리를 시원케 해 주셨고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시켜 주셨다. “충성 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열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잠 25:13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② 서로 협력하는 사람이다. 주를 위하여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은 서로에게 기쁨이 된다. 이기적인 사람은 제아무리 잘한다고 으스스대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기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겸손히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은 아름답고 함께 하고 싶어진다. 기러기들이 V자 대형으로 줄을 지어 날아가면 뒤따르는 새들은 공기의 저항을 50%나 덜 받는다고 한다. 그 결과 무리를 지어 비행하면 혼자 비행할 때 보다 71%나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한다. 우리가 서로 함께 협력하면 어려운 일도 쉽게 처리할 수 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다윗은 시 133편에서 이렇게 노래하였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들이 서로 협력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나 몸의 지체가 이기적일 때에 다른 지체에게 고통이 된다. 우리가 겸손히 섬기고 협력하며 하나 될 때 공동체는 아름다울 것이며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나 혼자 하겠다, 내가 해야 잘한다.’라는 개인 중심의 생각을 버려야 한다. 서로를 위하여 힘을 모아야 하겠다.

③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나름대로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영적인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 시험에 빠진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해와 위로를 주며 함께 있어 줌으로 그것이 큰 힘이 된다. 내가 지치고 힘들어할 때 내게 던져주는 한마디의 위로 말은 그렇게 내가 시원케 할 수가 없다.

사람의 필요는 물질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이 더 큰 힘이 된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모임의 자리 등 그 자리를 지킴으로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게 된다.

농담보다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이 더 아름답고 힘이 된다. 우리는 교회와 노회, 총회를 겸손히 섬기며 서로를 돌아보며 협력하면서 언제나 함께 있어 주고 위로와 격려의 말로 필요를 채워주는 여름날에 열음냉수와 같이 시원케 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목양칼럼



김정용 목사
(충울산교회 담임)

전쟁터에서 한 병사가 포탄 파편에 다리를 크게 다쳐 기절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병원이었고, 다리 한 쪽이 없어진 것을 알았다. 처음에 크게 낙담하던 병사는 시간이 흐르면 뒤편의 새들은 공기의 저항을 50%나 덜 받는다고 한다. 그 결과 무리를 지어 비행하면 혼자 비행할 때 보다 71%나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한다. 우리가 서로 함께 협력하면 어려운 일도 쉽게 처리할 수 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다윗은 시 133편에서 이렇게 노래하였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들이 서로 협력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나 몸의 지체가 이기적일 때에 다른 지체에게 고통이 된다. 우리가 겸손히 섬기고 협력하며 하나 될 때 공동체는 아름다울 것이며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나 혼자 하겠다, 내가 해야 잘한다.’라는 개인 중심의 생각을 버려야 한다. 서로를 위하여 힘을 모아야 하겠다.

병사는 대답했다. “다리를 잃은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바쳤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부터 내 인생은 변

화되었다네.”

이 병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긍정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 마음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 사람의 행복이나 불행은 환경이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에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 즉 장남인 압살롬이 모반을 일으켜 왕권을 찬탈당하여 얼굴을 면박으로 가리고 맨발로 왕궁을 빠져 나와 광야와 산골짜기로 유랑할 때 시편 23편을 쓰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런데 이처럼 기가 막힌 상황에서 지은 시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 투영되고 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최상의 행복을 누리고 있다

긍정의 힘

는 말이다.

이 시편에서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또한 반드시 나를 종결하실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품었던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치러 주시고 기쁨을 내 머리에서 부으셨으니 내 진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이러한 긍정적인 마음은

자신의 신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다윗의 이러한 믿음을 기뻐하시고 보상에 주셨다. 즉 압살롬의 모반을 진압해 주셔서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다.

지금 인류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팬데믹이라고 하는 대재앙을 만나 2년이 가깝도록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자가 격리 등으로 사람들이 서로를 만나기는커녕 밖으로 나가는 것도 차하지 못해 실내에서 주로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우울증, 불안장애, 무기력감, 불면증 등을 유발하는 속칭 ‘코로나 19 블루’라고 하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필요한 치료제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라 생각되어진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가져야 할 긍정적인 마인드는 어떤 것일까?

첫째는 지금 인류가 겪고 있는 이 재앙은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 둘째는 우리의 긴 인생의 여정에 비하면 한 밤의 경침 같이 짧은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는 섬 없이 달려왔으나 지나쳐버린 우리의 신앙상태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고, 아울러 그동안 긴 시간을 무탈하게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재앙이 속히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한층 다리를 잃은 병사, 그리고 다윗이 누웠던 행복을 우리도 누릴 수가 있을 것이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4:7). 아멘!

초대칼럼



문용길 목사
(한마음교회 원로)

한자로 이런 문장을 만들어 봤다. [牧師聲 獅子吼 泰山鳴] 이에 대한 나의 억지 해석은 이렇다.

‘목사의 소리는 사자후 큰 산이 두려움을 느껴 작은 참새처럼 울고 있다’

물론 목사의 소리는 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겠지만, 표현은 태산으로 비유했다.

열 길 물속보다 더 깊고 어찌하면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넓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란가?

그런데 웬 소리 타령인가? 하겠지만, 소리만큼 위대한 존재가 어디 있을까 싶어 서두를 이렇게

소리(音響 / 聲) 이야기

시작했다. 소리의 역사에 대하여 만물의 출발점인 창세기 성경도 밝히지 않는다.

그리고 성경 맨 처음 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 보면 소리의 창조는 발견하기 어렵다.

그래서 소리 즉 말은 본래 존재한 것 아닌가 싶다. 성경은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서 주님을 ‘말씀’으로 소개한 것은 소리 즉 말은 피조물이 아닌 창조 이전에 존재했으므로 창조역사에서 창조의 도구로써 말은 바 사명만은 정취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확신한다. 그렇지 않은가?

말은 소리의 변형된 진화다. 사람이 태어나 18개월 이전에 언어를 책임진 두뇌의 성장이 완성되므로 웅얼이할 때 바로 언어교육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확실하다.

한 예로 늑대소년 이야기는 더 확실한 조기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늑대가 키운 사람은 결코

인간의 말을 할 수 없다고 한다. 18개월이라는 천금 같은 기회를 잃었기 때문이다. 소리 즉 언어의 능력은 참으로 놀랍다.

옛날 지혜로운 한 나그네의 이야기다. 한양을 향해 건기를 부지런히 했으나, 노자가 부족한 탓에 제대로 제때 밥을 먹지 못해 기진해 갈 때 우물가를 지나게 되었다. 마침 한 아낙네가 빨래하는 데 옆에 사내아이가 놀고 있다. 우물가로 내려간 나그네 다짜고짜 아이의 빨을 때리니 숨넘어갈 듯 자 지러지게 울어 제까자 화가 난 아낙네 빨래 방망이를 들고 와 내려치려 한다. 나그네는 잠깐 자기 말 좀 들어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

“아주머니, 아이의 관상을 보니 장차 큰 인물이 될 상인데, 관상의 완성이란 목소리는 어떤가 하여 그 아이의 본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빨을 때린 것이니 고정하세요.”

그때 아주머니는 정색하며 미

래 아이의 운명을 물으니, 나그네는 좋은 말로 대답하고 집으로 초대받아 웅충한 대접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나그네의 배고픔을 해결하려는 기사가겠지만, 소리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교훈을 새롭게 얻는다.

사극에서 보면 어쩔 간의 목소리와 충신의 목소리의 차이가 큰 것일까, 아니면 감동이 의도적으로 만든 연출인가? 하여 고민도 하지만 목소리 좋고 흉측한 일을 도모하는 자 찾기 어려운 경험은 그대로 반증이 된다.

그러니 어려서부터 재능교육도 좋지만 굵은 톤의 목소리로 남성미를 드러내고 여성의 아름다운 목소리 훈련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바이다.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에 그치지 않는다. 그 목소리에 생각과 사상 지식을 덧입히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큰 힘으로 자리하게 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정치지

도자들의 보기 민망한 목소리로 정치공세를 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 무덤을 파는 격이 아니겠는가 싶다.

이만큼 소리의 영향력은 놀랍다. 보는 것과 듣는 것을 비교하면 시각의 공포보다 청각이 주는 공포는 한 차원 높기 때문이다.

청각의 공포는 인간의 상상력이 공포의 힘을 더하기에 그렇다. 인간의 상상력의 무한한 가능성은 공포의 상상력도 극대화하니 그렇다.

목사의 목소리가 복음의 이미지를 더 의미 있게 하는 적당한 톤으로 우렁차게 복음을 전한다면 설교의 무한한 가능성의 메시지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는 한층 더 의미 있게 전달될 터이니 소리를 변화시켜 보자.

연습과 훈련은 목소리 변화에 일등공신이 될 터이니 들리는 타인의 목소리를 분석하여 타산지석을 삼는 지혜로 내일을 희망하게 만들어 봄이 어떠할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요강

총신대학(합동) 사이버대학 학생 모집



이사장 윤서구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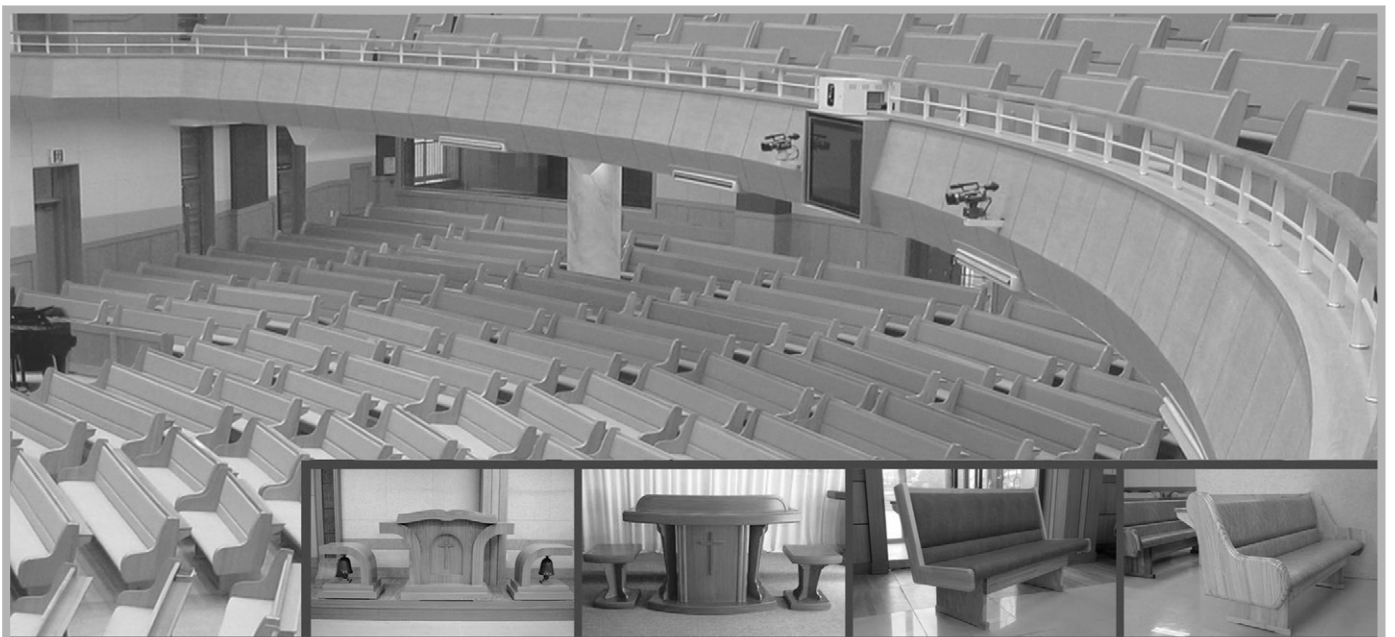
원장 임중학 목사

과정	자격	학제	특전
목회학석사 (M, Div, eq)	- 일반대 졸업자 및 동등학력자 - 신학교 졸업자	6학기	* 교육부학사학위(사이버) * 졸업 후 목사안수 * 미연방부 인정학위 (오이코스대학교) * 졸업 후 목사안수
목회학 박사 (D, Min)	- 목회학석사(M, Div) 학위 - 목회경력 5년 이상자	6학기	* 미 연방부 인정학위 (오이코스대학교)
대학부	- 고등학교졸업 - 지방신학 3년 졸업	8학기	* 교육부 인정 학위(사이버) * 오이코스대학교 편입
사모대학	- 현 목사 사모	2학기	

* 총회인준신학교 전북개혁신학연구원

* 총신대학교 - 원격 평생교육원
서울 사이버 에듀

1. 접 수 : 2021년도
2. 수업장소 :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창경로 16길 73-4(연건동 195-14)
3. 문 의 처 : 총회개혁신학연구원 010-7294-0571 / 02)742-3538
4. 후원통장 : 농협 317-0013-9840-4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대표이사 김재호 총로

010-3653-6162

(본 교단 전북노회 한소망교회 사무)

(주)모리아성구사

기술특허업체
품질인증업체
벤처기업인증업체

문의 1644-6162

사훈

신앙 :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으며

품질 : 고객이 감동할 때까지

자세 : 최선을 다하여

목표 : 세계선교를 이루자

강대상, 장의자, 개별의자, 극장식 의자, 레자 방석, 성가대 가운 등
기타 성구품목 전문생산



모리아성구사
www.moriah.kr

서울사무실 : 고객센터: 1644-6162,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1길 16(송파동) 3층
전주공장 : 일반전화: 063)211-6161~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7가 797-4
인도네시아 공장 : 14A Block F1 Tamman Pinang Indha, Sidoarjo, Surabaya Indonesia

목양 내조 記-7



양영자 사모
재인교회

양영자 사모는 재인교회 원로 목사 임종학목사의 사모로서 1975년 결혼 후 45년 동안 동역했다.

1996년 남편이 목회학박사 학위 과정 마지막 학기에 미국 마이애미에 있는 나스 신학교에 40일 동안의 수업을

위하여 출발하였다. 담임목사가 자리를 비운 교회와 남편의 공부와 안전을 위하여 기도가 절실하였다.

그런데 박00 집사님이 40일 작정 기도를 하자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것이다.

박00 집사님과 나는 한00 집사님도 권하여서 셋이서 40일 기도를 작정하고 함께 기도회를 시작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날마다 10시에 만나서 강단 아래 앉아서 1시간씩 성경을 읽고 합심 기도를 했다. 한00 집사는 뜻밖이 딸을 품에 안고 기도했다. 한 집사님의 시어머니께서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시집바구니를 가지고 왔는데 기도를 마친 후에는 장보기를 하여 집에 갔다.

나는 집사님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음이 참으로 감사했다. 기도 동역자를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두 집사님의 기도 동역에 대하여 빛 진자의 마음으로 지금도 감사한다. 더욱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이었다.

남편이 공부를 마치고 미국에서 돌아와 미국에서 겪었던 한가지 사건을 이야기해 주었다. 남편은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시카고에 살고 있는 홍00 목사님을 만나러 가다가 어려운 일이 생겼다. 밤에 시카고 '오페라'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도착지를 알리는 기내 방송을 잘 알아듣지 못해서 시카고 '오페라' 공항이 아닌 다른 어느 지방의 공항에 내려버렸다.

당연히 마중 나와 있어야 할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늦은 밤, 낮은 공항은 일하다가 끝나가는 시간이라서 청소하는 직원 몇 사람이 일하고 있었다.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는 시대라서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되었다. 걱정스럽고 당황한 가운데 공항 직원에게 서툰 영어로 사정을 말했다. 다행히 시카고 '오페라' 공항에 마중 나와 기다리던 분과 전화 연결이 되었고 남편은 이복 직전에 있던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무사히 시카고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생각했다.

시카고가 있는 미국 동부지역은 한국 시간과 13~14시간 차이가 난다. 그곳 밤 11시면 한국은 오전 10시인데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날마다 계속하던 시간이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실감하였고 기도하는 일이 더욱 즐거웠다.

우리 부부는 불신자인 부모님에게서 태어났고 자랐다. 우리는 대학생이 되어 예수님을 만났으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었으나 부모,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우리는 가족 구원이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다. 선교단체나 교회에서 행사를 할 때 가족들이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고 행복해 보였으며 부러웠다.

우리 가족들도 저렇게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소망했다.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은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있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만 좋아하며 부모 형제를

소홀히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까이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주님께 인도하여 구원받게 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나는 우리 가족들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 주고 싶었다. 주님이 나에게 보이셨던 사랑의 섬김 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했다.

남편은 6남매의 장남으로서 3명의 남동생과 2명의 여동생이 있었다. 부모님과 동생들에게 우리 부부는 존경받을 만한 삶이 아니었다.

예수님을 전파한다고 하면서 교사의 직분을 버리고 가난하고 고단한 삶을 사는 모습이 한심하고 딱 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부부는 부모님과 동생들

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라고 믿었다. 우리는 힘이 닿는 대로 장남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우리는 동생들과 함께 살면서 생활비와 학비를 도왔다.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때는 정성을 다하였다. 그러나 그런 노력이 보잘 것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늘 부족해서 미안한 마음이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통해서 우리의 부모 형제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믿음으로 살면서 10여 년이 지나자 가족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부모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동생들도 한 사람씩 예수님에게 나오기 시작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리라"는 말씀이 우리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한교연, 1개 교단 2개 단체 새 회원으로 인준

제10-2차 실행위 및 임시총회 개최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이 지난 15일 오후 강원도 문막 오크밸리 리조트 세미나실에서 제10-2차 실행위원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선교 총회(총회장 김에스터 목사)를 비롯, 민족복음화협의회와 주님의사랑 세계선교센터 등 1개 교단 2개 단체를 새 회원으로 인준했다. 가입이 인준된 1개 교단, 2개 단체는 지난 제10-3차 임원회 결의를 거쳐 이날 실행위 및 임시총회에서 회원으로 확정됐다.

이로써 한교연의 회원은 40개 교단, 21개 단체로 늘어났다. 한교연은 지난 5월 6일 개최된 제10-1차 실행위 및 임시총회에서도 1개 교단 5개 단체의 가입을 인준한 바 있다.

이날 제10-2차 실행위원회 및 임시총회는 공동회장 최요한 목사의 사회로 공동회장 한태도로 목사(예정 호헌총회장), 맹상복 목사(총무협 부회장), 윤영숙 목사(예장 합동총신측 총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코로나19 퇴치와 차별금지법(안) 등 악법 철폐를 위해', '한교연의 단합과 교회 일치를 위해' 각각 특별기도했다. 이어 상임회장 김효종 목사가 설교하고 명예회장 박요한 목사의 축도로 개회예배를 마쳤다.

상임회장 김효종 목사는 설교에서 "코로나로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조차 통제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간구와 기도"라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 안에 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통하며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라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육신의 질고로 병상에 누어 내가 누구와 동행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묵상할 기회가 많았다"며 "목회자는 돈과 명예를 쫓아망하는 길을 택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동행함으로 진정 복된 길을 걸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부 회무처리는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의 사회로 회순 채택과 제10-1차 실행위원회, 임시총회 회의록을 채택하고 사무총장 최귀수 목사가 경과 및 예정사업을 보고했으며, 결의 인준을

토의하고 상임회장 원종문 목사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4단계로 정부가 또 다시 수도권 교회들에 전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한 상황에서 한교연은 12일 입장문을 발표해 교회들의 자율 예배, 책임방역을 정부와 방역 당국에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7월 6일 한교연이 "한-아랍재단 설립 법안을 즉시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한 후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철회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송 대표회장은 "최근 한교연이 회원교단과 단체 간에 단합하는 돈독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교회를 바르게 대변해 나가자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교

단과 단체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며 "모두가 회원 교단과 단체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준 덕분"이라고 인사했다.

사무총장 최귀수 목사는 경과보고를 통해 "백령도 안보기도회와 6.25 격전지 탐방 행사가 많은 회원교단 단체들의 성원과 참여 속에서 은혜롭게 마치고 된 것을 감사드린다"며 특히 AAA프라이빗에쿼티(주)와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통한 교회 기부 나눔운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어 회원단체인 성누가회의 국내 의료선교 영상이 상영됐으며, 성누가회 사무총장 강해주 목사가 회원교단 신하 교회에 출석하는 의사 간호사 중에 의료선교 자원봉사자 참여를 요청했다.

목회자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소속 4개 교회가 연합으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주제로 원로 이용걸 목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뉴욕새벽별장로교회에서 연합집회 및 세미나를 열었다. 4개 교회는 뉴욕새벽별장로교회(정기대 목사), 주기철교회(이종태 목사), 뉴욕좋은교회(정인수 목사), 뉴욕심포니교회(신동기 목사) 등이다. 교회연합집회는 6월 27일(주일) 연합 주일예배에서 "재림신앙으로 무장하라"라는 메시지가 선포됐으며, 29일(화) 저녁에는 "충성된 직분자가 되라"는 주제로 직분자들을 위한 집회가 진행됐다. 28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교계 목회자들이 모인 가운데 "바른 목회자가 되라"는 주제로 영생목회자훈련원이 주관하는 목회자 세미나가 진행됐다. 이용걸 목사는 먼저 "목회자의 소명"에 대해 나누며 "소명이란 왕이신 하늘 부르는 명령이다. 특수한 신분을 부여받고 봉사하라고 명령받은 것이 소명이다.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자기 정체 의식을 먼저 확립해야 한다. 내 의지로 신학교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알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다.

그리고 "목회하면서 하면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한 것은 강당에 해 주시거나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했다. 목사와 사모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나라를 위해 일하면 행복하지만, 한 명은 소명이 있지만 다른 배우자는 그렇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했다. 그리고 이용걸 목사는 "목회자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 나누며 "권위는 방에 없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이다. 이민교회 목회자들에게는 권위가 없다. 목사와 교인 사이에는 안전거리가 있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그래도 울타리를 넘지 않는다. 하지만 이민교회는 너무 성도들과 가까이 있다 보니 권위가 없다"라고 목회의 지혜를 나누었다. 그리고 목사가 권위를 세우는 5가지 방법을 나누었는데, 생생한 예화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상을 참고하면 된다.

첫째, 목사는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권위가 있다.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기에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여 동역을 해야 세워주신다.

둘째, 목사는 말씀을 전할 때 권위가 있다. 개신교에서 목사의 신분은 평신도와 같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제사장이다. 목사는 구약의 제사장 같은 신분으로 스스로 높이면 안된다. 하지만 신분은 같아도 직분은 다르다. 목사의 직분은 말씀을 가르치고 목양하는 일이다. 목사의 권위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나온다. 강단에서 내려오면 평신도와 같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요즘 목사가 권위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이야기를 하기에 그렇다. 평신도들도 다 아는 내용이다.

셋째, 목사는 영력이 있을 때 권위가 있다. 목사는 영력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길 때 해결이 안될 경우도 있다. 그때 목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결정하자는 것이다. 교인들에게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

라는 인정을 받은 목사가 그렇게 말하면 그것으로 끝난다. 우리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하는 목사라고 인식되게 해야 한다.

넷째, 목사는 회생할 때 권위가 있다. 모든 면에서 목사가 앞장서 본이 되어야 한다. 에베랴단 한 목사는 팬데믹으로 동시 에 10명만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활주일에 15번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다. 그러나 팬데믹 기간인데도 교회가 성장한다. 목사는 회생하고 앞장서야 한다. 하려면 절대 안한다. 저는 청소년부터 헌신까지 모든 일에 앞장섰다. 그리고 가정 보다 교회가 먼저였다. 아 내가 아이를 낳을 때도, 아이의 졸업식 때에도 심방이 먼저였다. 아이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다.

다섯째, 목사는 인격적일 때 권위가 있다. 목사는 설교로 3년은 목회할 수 있지만, 3년 뒤에는 인격으로 목회해야 한다. 목사는 인격적으로 존경받아야 한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따라하는 작은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

목회하며 교인이 뭐라고 해도 따지지 마라. 따지면 결과는 좋지 않다. 억울할 때라도 원래 죄인인 자를 위해 의인되신 주님이 죄인으로 취급을 받으셨는데, 원래 죄인인 내가 죄인 취급을 받는 것을 억울해해서는 안된다고 반복해 생각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심판의 그날까지 누가 뭐라해도 바르고 소신껏 달려가라.



전국교회예배안내

영복교회

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11:00

오전: 2:00

수요일밤: 7:00

금요일아: 9:00

담임 이충년 목사

10218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숭로로 42-1 (대화동 1459-7)
전화 010-8955-1752

등명교회

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11:00

오전: 2:00

수요일밤: 7:00

금요일아: 9:30

담임 류현욱 목사

54610 전라북도 익산시 동천로1길 14-31(동산동)
전화 (063)854-5180 / 010-9654-5180

새은혜교회

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11:00

오전: 2:00

수요일밤: 7:00

금요일아: 9:00

담임 박형진 목사

1547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8 이노프라자 7층
전화 010-8424-0688

극동선교교회

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오전 11:00

오전: 2:00

수요일밤: 7:00

금요일밤: 9:00

담임 박봉주 목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14번길 11-9
전화 010-9980-1156

성인교회

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11:00

오전: 2:00

수요일밤: 7:00

금요일아: 9:00

담임 정원득 목사

5508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변2길 24-6(삼천동1가)
전화 010-7285-8291

동주교회

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11:00

오전: 2:00

수요일밤: 7:30

금요일아: 8:00

담임 김양석 목사

11414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심일로 185번길 110-16
전화 (031)873-6857 / 010-7221-5852

월드비전교회

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1부 9:00, 2부 11:00

수요일밤: 7:00

금요일아: 9:00

담임 김선영 목사

경기도 김포시 한강신도시 전원로 32 전원마을 월드성가네
전화 010-2301-0898

임마누엘교회

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11:00

오전: 3:30

수요일밤: 7:30

구역예배(금): 7:30

담임 윤서구 목사

1313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화랑로534번길 6-8(상선동)
전화 010-3722-9106

증산교회

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11:00

오전: 2:00

수요일밤: 7:00

금요일아: 9:00

담임 김정웅 목사

44424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3길 11-2(성안동)
전화 (052)243-0255, 243-0344 / 010-3848-0691

소성교회

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11:00

오전: 2:00

수요일밤: 7:30

담임 이승규 목사

5513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양지길 16-11(삼천동17가)
전화 (063)226-9111 / 010-7420-0634

수원성심교회

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1부 9:00, 2부 11:00

오전: 3:00

수요일밤: 7:30

담임 박춘배 목사

1622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월드컵로 412(연무동)
전화 010-2752-1634

은누리사랑교회

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11:00, 14:00

수요일 오후 7:00

담임 이혜도 목사

서울 도봉구 도봉로 145길 33(방학동) 3층
전화 010-2913-3059

꽃밭교회

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11:00

오전: 2:00

수요일밤: 7:00

금요일아: 9:00

담임 박광식 목사

02753 서울특별시 성북구 창월로33길 1(성북동)
전화 (02)915-0622 / 010-9161-0167

한소망교회

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오전 11:00

오전: 7:30

수요일밤: 7:30

담임 김정호 목사

5485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암길 10(반월동)
전화 010-3652-9191

김제반석교회

예배시간

새벽: 4:30

주일: 11:00

오전: 2:00

수요일밤: 7:00

금요일아: 9:00

담임 이부교 목사

54338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청운3길 21
전화 010-3657-0464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 제105회기 총회주일 세례교인 헌금



제105회기 세례헌금현황

번 호	교 회	담 임	노 회	금 액	번 호	교 회	담 임	노 회	금 액	번 호	교 회	담 임	노 회	금 액
1	평안교회	이경근 목사	전북동노회	1,000,000	16	월드비전교회	김선영 목사	서울남노회	200,000	32	꿈꾸는교회	황호관 목사	경서노회	200,000
2	성현교회	강대민 목사	서울남노회	440,000	17	반석교회	이부교 목사	전북노회	300,000	33	예성교회	전기원 목사	경기노회	160,000
3	디베라교회	신연식 목사	경서노회	200,000	18	중울산교회	김정용 목사	서울남노회	250,000	34	더스토리교회	박동혁 목사	경기노회	160,000
4	수원성심교회	박춘배 목사	서울남노회	1,200,000	19	성인교회	정완득 목사	전북중부노회	530,000	35	낙원교회	김중봉 목사	전북동노회	300,000
5	새은혜교회	박형진 목사	경서노회	500,000	20	임광사랑교회	박순중 목사	서울남노회	120,000	36	상촌교회	서용진 목사	전남노회	200,000
6	동주교회	김양섭 목사	경중노회	150,000	21	임마누엘교회	윤서구 목사	서울동노회	1,010,000	37	모악교회	홍주일 목사	전북노회	200,000
7	양곡제일교회	문만호 목사	서울남노회	100,000	22	강남교회	배옥선 목사	서울남노회	300,000	38	화평교회	박종윤 목사	전북노회	200,000
8	찬양교회	이다윗 목사	서울남노회	300,000	23	동산교회	박숙희 목사	전중노회	150,000	39	생명중동포교회	하예성 목사	경서노회	150,000
9	한소망교회	김정호 목사	전북노회	1,100,000	24	믿음찬교회	이강무 목사	남부노회	100,000	40	새사랑교회	최영일 목사	전북노회	150,000
10	에벤에셀	진상운 목사	전북중부노회	150,000	25	어울림교회	유남규 목사	전북중부노회	200,000	41	소성교회	이승규 목사	전북노회	300,000
11	꽃밭교회	박광식 목사	경기노회	400,000	26	한빛교회	임용태 목사	서울동노회	500,000	42	엠마오선교회	이수봉 목사	전북동노회	150,000
12	중심교회	박경남 목사	경기노회	200,000	27	동명교회	류현욱 목사	전북동노회	600,000	43	좌포은총교회	주상기 목사	전북동노회	150,000
13	남광교회	최갑철 목사	전북노회	500,000	28	영복교회	이충년 목사	경중노회	500,000	44	인월동광교회	조강희 목사	전북노회	150,000
14	은혜로교회	이철영 목사	경중노회	150,000	29	덕소제일교회	박만진 목사	경기노회	220,000	45	생명의빛교회	정인직 목사	전북동노회	150,000
15	온누리사랑교회	이해동 목사	경기노회	200,000	30	새목장교회	김만술 목사	서울남노회	150,000	46	길교회	김경국 목사	전북노회	150,000
					31	안양중앙교회	김문옥 목사	서울남노회	150,000	47	송악관능교회	김요환 목사	경서노회	150,000

입 금 계 좌

농협 301-0116-921281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
국민 488401-01-225487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

- ❖ 교회의 형편에 따라 주일을 정하여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송금 후 교단본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영수증이 필요한 교회는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노회 박형진목사를 총회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새은혜교회
담임 박형진 목사

존경하는 총대 여러분!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
경서노회는 현 부총회장 **박형진 목사**를
제106회 총회장 후보로 추천하오니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노회장
하예성 목사

경서노회 노회원 일동은
총회 임원전행규정 제3장10조와 12조1항에 의거하여
박형진목사를 제106회 총회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대한예수교
장 로 회

경서노회

노회장 : 하예성 목사
서 기 : 김요환 목사